안녕하세요 교재의 묵자 부분을 발표하게 된 14번 조명하입니다. 묵자는 은나라 유민들의 나라인 송 출신으로 하층의 노동 계급을 대변하여 반전, 평화, 평등 사상을 주장하고 실천한 전국 시대의 사상가입니다. 묵가들은 전국시대부터 진나라 초까지 유가와 함께 가장 큰 세력을 떨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인민의 협동적 연대와 경제적 상호 이익을 통해 사회를 새롭게 조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진, 한 이래 토지 사유를 중심으로 하는 지주 관료 중심의 신분 사회가 정착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묵자의 언행을 모아 편찬한 책의 이름도 묵자입니다. 묵자는 다른 책보다 난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도가의 경전인 도장에 끼어 있어서 체계를 세워서 읽을 수 없었고, 문장이 간결하고 쓸데없는 설명이 없어 그 안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묵자와 묵가들의 이름인 ‘묵’이라는 글자에서 이들이 어떤 사상을 말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묵’은 ‘묵형’을 의미합니다. 묵형이란 죄인의 몸에 상처를 내고 먹물로 글자를 새겨 전과를 표시하는 형벌입니다. 묵자는 원래 성이 ‘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묵’을 성으로 삼음으로써 묵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 형벌이 부당하다는 것과 자신은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묵가들이 통치 권력의 정당성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묵’은 우리말로 ‘먹’을 뜻합니다. 따라서 검은색의 이미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주로 노동할 때 입는 옷의 색이 검다는 이유에서 검은색 자체가 노동주의를 상징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하층민이나 공인들의 집단이거나 이들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묵가들은 헌신적 실천을 강조해서 살이 붙을 겨를이 없어 누구나 깡말랐고 안색도 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묵’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묵가들의 헌신적인 실천은, 그들이 하나라의 우임금을 모델로 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임금은 황하의 치수를 담당하여 장딴지와 정강이의 털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신명을 바쳐 일했던 사람입니다. 우임금의 검소하면서 실천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비명을 주장합니다. 비명이란 운명이나 숙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힘, 실천 의지를 강조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은 먹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먹줄이란 목수들이 직선을 긋기 위해 쓰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법도와 엄격한 규율을 상징합니다. 묵자들의 규율은 ‘그 말은 믿을 수 있고, 그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있으며, 한번 승낙하면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뛰어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거자가 생살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자란 리더와 같은 뜻이며, 따라서 묵가의 초대 거자는 묵자였습니다.

교재에서는 묵자의 사상을 겸애와 반전 평화론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겸애는 간단하게 말하면 박애주의입니다. 묵자는 당시의 사회적 혼란이 모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 가장 큰 해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겸애, 즉 서로 사랑할 것을 주장했는데, 겸애란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 보듯이 하고, 다른 가 보기를 자기 가 보듯이 하고, 다른 사람 보기를 자기 보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묵자는 천지론을 주장하는데, 그 내용은 겸애가 바로 하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 이외의 모든 존재, 즉 부모, 학자, 군주는 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이들이 교별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와 남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이와 달리 하늘은 모두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하늘만을 법,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묵자는 반전 평화를 당시의 실천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전쟁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반대합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전쟁은 부국강병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묵자는 전쟁을 집단 학살이라고 봅니다. 공격 전쟁을 의롭지 않고, 이롭지 않고, 피해가 막심하며, 결국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므로 의롭지 않고, 소수의 전승국에게만 이롭지 다수의 패전국에게는 이롭지 않고, 국가는 백성들을 잃으며 백성들은 생활의 기반을 잃게 되는 피해가 극심하며, 공격 전쟁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이미 역사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묵자의 소염론은 당시의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묵자가 물감에 실이 물드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비단 실만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물드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으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는 지배 계층의 사고가 피지배 계층의 의식까지 침투된 것과 전쟁이 일상화되어 전쟁 불감증이 심각했던 당시 상황을 나라도 물들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공격 전쟁을 반대하고 교상리 즉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 묵자는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면 힘을 합쳐 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근본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자 사상에 대한 비판을 통해 묵가들의 사상을 입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용’에 대한 비판입니다. 묵자는 사과론에서 재물의 사용에 낭비가 없게 함으로써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낭비를 줄임으로써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묵자는 낭비, 즉 사람들의 실용에 쓸모가 없는 것으로 창, 칼, 궁궐, 옷, 음식, 수레, 배, 장례, 음악 등을 들었고 순자가 이를 실용에 눈이 가려 문화를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묵가들의 엄격함에 대한 비판은 많은 제자백가들이 했습니다. 먼저 묵가들의 엄격함은 양성군의 편에서 초나라의 공격에 대항을 했으나 어떤 방도로도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없자, 거자였던 맹승과 이하 183명이 자살했다는 일화에서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복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에 왕이 복돈의 아들을 사면해주려고 하자 복돈이 한 말입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해친 자는 형벌을 받는 것이 묵가의 법입니다. 왕께서 비록 제 자식을 사면하여서 처형하지 않도록 하셨더라도 저로서는 묵자의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식을 결국 처형시켰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맹자와 공자의 답변은 다릅니다. 맹자는 순 임금의 아버지가 살인을 했으면 사형을 받는 것이 옳지만, 그 상황에서 순은 임금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몰래 부친을 업고 도망가 멀리 바닷가에 숨어 살면서 부친을 봉양하고 천하를 잊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생을 보내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잘못을 알게 된다면 서로를 위해 그 잘못을 감추어주는 것이 곧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가와 묵가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묵자에 대한 『장자』의 비판은 요약하기가 어려워 책에 인용된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묵자는 만인의 사랑과 만인들 간의 이익을 말하고 서로의 투쟁을 반대했으니 그는 실로 분노하지 말 것을 설파한 것이다.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지 말고, 울고 싶을 때 울지 말고, 즐거울 때 즐거워하지 말아야 한다면 이런 묵가의 절제는 과연 인간의 본성과 맞는 것인가? 묵가의 원칙은 너무나 각박하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도王道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묵자의 뜻은 좋지만 실천은 잘못된 것이다. 스스로 고행을 자초하여 종아리에 살이 없고 정강이에 터럭이 없는 것으로 서로 경쟁을 벌이게 할 뿐이다.